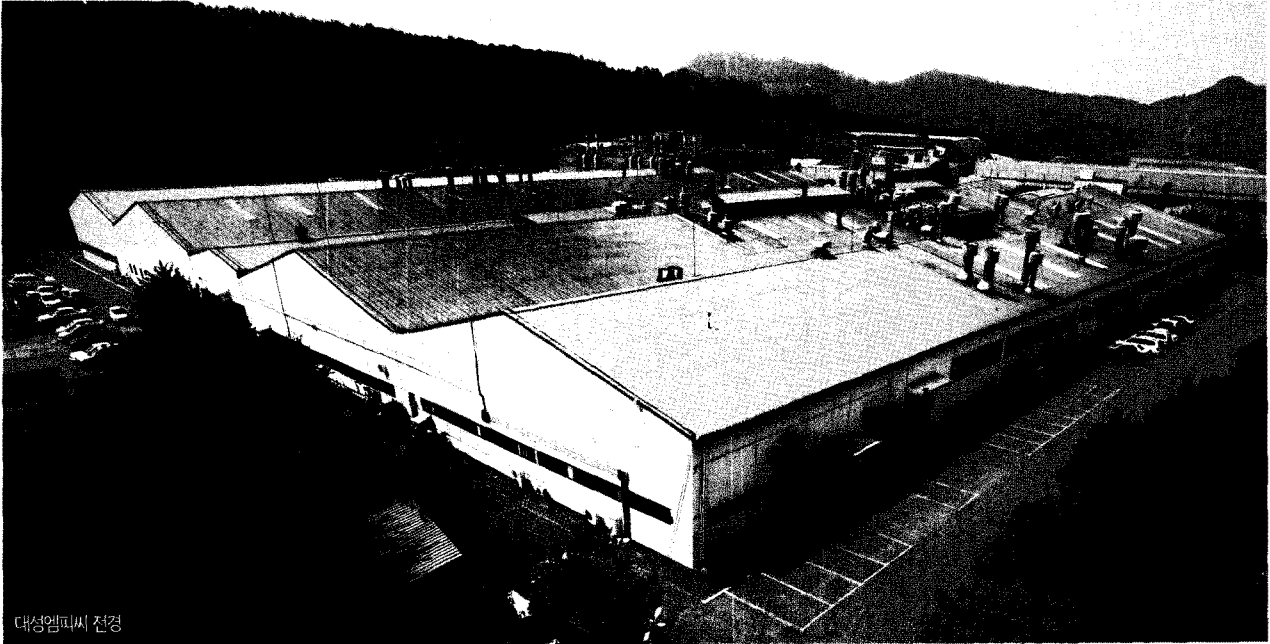


깔끔한 인쇄가능한 불칸 메탈데코 금속전용 블랭킷 대성엠피씨, 2번의 테스트로 본격 사용 결정



㈜대성엠피씨(대표이사 이형집)는 최근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 낸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을 일반잉크를 사용하는 모든 인쇄기에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 본격 사용은 2번의 테스트 결과 병 뚜껑이나 핸드크림 등의 캔 인쇄시 깔끔한 반전글자(글자 부분을 비우고 배경을 인쇄해서 만들어지는 글자)와 충분한 미판 농도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반복 인쇄작업과 레지스터 맞춤 작업 등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칸 메탈데코는 이태리 트렐레보그 본사에서 제품 개발단계부터 한국 시장을 최우선 타겟으로 삼아 맞춤 개발한 제품이다. 트렐레보그 불칸 블랭킷은 일반 매엽, 상업 및 신문 운전용으로 우리나라 적성에 맞게 개발, 공급되고 있다.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의 1, 2차 테스트를 총괄한 대성엠피씨의 이순행 이사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트렐레보그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을 테스트한 결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순행 이사는 “2차 테스트에서는 대성엠피씨에서 작업하고 있는 비타민음료 병뚜껑과 유명 핸드크림 제품 캔의 테스트 인쇄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병뚜껑 인쇄에서는 작은 반전글자들이 깔끔하게 인쇄됐을 뿐 아니라 첫 번째 테스트에서 겪었던 반전글자 뭉개짐과 판의 조기 마모 등의 문제들도 새 버전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을 정도로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블랭킷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흰색 반전문자를 깨끗하게 얻고, 뚜껑과 바닥 통 모두 충분한 미판 농도를 얻기 위해 같은 작업을 몇 번씩 인쇄기에 돌리고 반전글자 위에 다시 한 번 흰색 잉크로 글자를 인쇄하면서 레지스터를 정확히 맞춰야만 했던 핸드크림 제품의 캔 인쇄작업의 경우 뚜껑 면과 바닥면의 청색 미판 농도를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반전 글자들이 깨끗하게 반전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처럼 단 한번 작업으로 완벽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업을 한 이래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테스트를 주관한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의 한국시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메이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대성엠피씨와 화성메이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졌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화성에서는 인쇄사들의 작업효율 제고와 고부가가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음성군 **충북음성군**
자: 병도표시 **자: 병도표시**

- ▶ 핸드크림 캔의 흰색 반전글자
- ▶ 병뚜껑을 사 위에 중첩 장안으로 흰색 장도를 흰색 인쇄
- ▶ 핸드크림 캔 바닥면의 반전글자
- (불칸 메탈데코를 사용해 한번에 인쇄했다)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

tip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은 인쇄산업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특허 받은 생산공정, 수직적 통합,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는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Trelleborg Printing Blankets)에서 생산하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으로, 금속인쇄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비압축성 블랭킷과 달리 특수 압축층이 적용된 덕분에 민판인쇄뿐만 아니라 망점인쇄에서도 훌륭한 인쇄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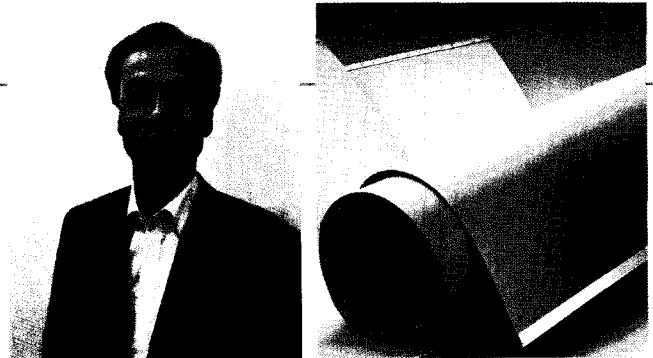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Trelleborg Printing Blankets)

트렐레보그 그룹의 트렐레보그 코티드 시스템즈 사업부에 속한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은 인쇄산업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특허 받은 생산공정, 수직적 통합,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5대륙 60개국에 공급되는 불칸(Vulcan)과 롤링(Rollin)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블랭킷 브랜드로서 윤전, 매엽, 신문, 전산품, 금속, 포장 인쇄시장에 오프셋 인쇄용 블랭킷을 공급하고 있다.

대성엠피씨 이순행 이사 미니 인터뷰

대성엠피씨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67년 5월 창립된 (주)대성엠피씨는 생산량의 40% 이상을 유럽,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고 있는 금속인쇄업체로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고품질 분유캔, 독점 생산을 비롯해 식품캔, 음료 캔 등을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쁜 작업일정에서 블랭킷 테스트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듯 한데요.

대성엠피씨는 화성메이저와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불칸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로 알려진 블랭킷 브랜드지만 이전에 당시의 금속인쇄용 인쇄기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망점재현은 훌륭하지만 민판(빠다)인쇄는 잉크 전달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불칸 메탈데코 블랭킷의 테스트를 요청했을 때 망설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되는 금속인쇄 전용 블랭킷으로서, 민판 인쇄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 압축층을 적용한 제품이라는 화성의 설명을 듣고 나서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2차 두 번의 테스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해 후지 프리믹스 인쇄장비에 메탈데코 블랭킷을 걸고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인 유명 비타민드링크 제품의 병뚜껑을 인쇄해보았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인쇄되지 않는 반전문자를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잉크를 금속판 전체에 충분히 내려서 충분한 농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결과가 좋아 보였지만 곧 반전글자가 뭉개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반전글자가 주변의 잉크로 메워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잉크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민판인쇄 부분에서 충분한 농도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금속표면이 블랭킷으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문제와 판의 조기 마모, 잦은 블랭킷 세척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1차 테스트 결과를 트렐레보그에 전달했으며 화성메이저로부터 불칸 메탈데코 금속인쇄전용 블랭킷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2차 테스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2차 테스트로 1차에서 진행했던 병뚜껑과 함께 좀 더 확실한 평가를 위해 유명 핸드크림 제품의 캔 인쇄 작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테스트 결과 병뚜껑 인쇄작업에서 업그레이드된 불칸 메탈데코는 작은 반전글자들이 깔끔하게 인쇄됐을 뿐 아니라 첫 번째 테스트에서 겪었던 다른 문제들도 새 버전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을 정도로 당사에서 이 병뚜껑 인쇄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블랭킷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캔 인쇄 작업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이 유명 핸드크림의 캔 인쇄작업의 경우 대개 인쇄기가 훨씬 느린 속도로 가동하면서 흰색 금속표면에 청색을 민판 인쇄해야 하고, 뚜껑과 바닥통을 따로따로 인쇄하지만 서로 잉크농도는 똑같아야 하며, 바닥 면에는 아주 작은 반전 글자들이 들어 있어 저희가 하는 인쇄작업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흰색 반전문자를 깨끗하게 얻고, 뚜껑과 바닥통 모두 충분한 민판 농도를 얻기 위해 같은 작업을 몇 번씩 인쇄기에 돌려야만 했습니다. 작업자는 항상 반복작업을 해야 했고 반전글자 위에 다시 한 번 흰색 잉크로 글자를 인쇄하면서 레지스터를 정확히 맞춰야만 했기 때문에 작업 효율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렐레보그의 불칸 메탈데코 업그레이드 버전은 당시의 가장 어려운 작업에서 믿기 힘든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블랭킷을 사용하자마자 뚜껑 면과 바닥 면의 청색 민판 농도를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반전 글자들이 깨끗하게 반전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